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1).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예, 나는 중생했습니다. 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내게 새생명 주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 예수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사랑할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5:2).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계명을 아주 간단한 형태로 주신것을 이제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모든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완전히 농축해서 그 진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가 3장에서 그렇게 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것입니다 (요 3:23). 이것이 계명이며 주님께서 축약하여 간단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그 전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줄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말을 할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때 이로써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것을 알게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5:3).

그것들은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첫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것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둘째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것 처럼 서로 사랑 하는것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더 어려우며 우리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나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최면상태에 들어가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나쁜사람이 아니야. 그에게 여러가지 장점도 있어. 내가 그친구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돼지. 그친구는 좀 시끄럽고 뻔뻔 스러워. 그리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해. 그렇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에게 적개심을 품어선 안돼. 그래도 난 그친구를 좋아해. 그 친구 나쁘지않아. 난 그친구 견딜수 있어.”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난 내가 천국에 가기에 충분할 만큼만 너를 사랑해.” 것처럼 자신의 심리전에 빠집니다. “어이, 너도 알다시피 그친구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런후에 그 사람이 파티에 옵니다. 그가 들어서면서 큰소리로 거칠게 바보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 바보같은 놈, 집에 머물러있지, 여기는 왜왔어?” 오랫동안 걸쳐 나에게 걸었던 체면술을 문밖에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난다음에 그를 만날 준비를 또합니다. 너도 알지만 그 친구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난 그친구가 좋아.” 그리고 나서는 또 모든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내마음을 사랑의 상태로 끌어 오려던 노력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맞지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할때엔 그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보이는지 알수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죄를 지을때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지은 그죄를 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추하고 끔찍합니다. 나는 당신을 견딜수 없게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 낼순 없습니다. 나 자신을 심리적으로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도록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의 주인공 이심이 증명됩니다. 자연적으로는 견딜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것을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속에서 온전케 됨을 알게됩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이렇게 기도해야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랑 하라고 하시는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로선 불가능 합니다. 난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내안에 역사 하시고 그들을 사랑할수있는 사랑도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걸 압니다. 나에게 그들을 위한 사랑을 주세요.”

이런일에 하나님앞에 전적으로 솔직하고 정직해야하는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바보짓을 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모두를 사랑 합니다. 주님, 한친구가 있는데 제가 마땅히 사랑해야할 만한 정도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의 도수를 높여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실수는 없어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앞에 바르고 정직해야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할것입니다, “하나님, 난 그사람을 미워합니다. 꼴도 보기싫고 전부가 다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사람을 사랑해야한다면 하나님 이 하셔야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셔야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발 제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옵소서.” 당신이 정직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수 있으며 그렇게 하실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동안엔 아무일도 성취되지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셈을 아시기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때 우리자신을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추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4).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받았을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여기서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개발됩니까? 하나님을 앎으로서 개발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수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 곧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됩니다.

알지못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리에서 당신에게 와서 “내일 만나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50 을 빌려 달라고 할때 여러분들 중에 그에게 주고싶으신분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당신을 꼭만나보고싶으니깐요. 제가 \$50 이 필요합니다 빌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내게 갚아준다는것을 어떻게 믿을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알지못하는 사람을 믿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많은 속임과 사기와 거짓등등이 많기때문입니다. 많은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알고 정직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신임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은 하나님을 잘모르기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8-29). 왜 그에게 배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기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5:5)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석가들의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로 침례를 받았고 그후에 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에게 와서 “주님, 청을 하나 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때 우리중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또 다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청하는것을 알지못하도다.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능히 받을수 있느냐?” 그들은 “예, 주님, 할수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는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 “그가 물과 피로 임하신자” 는 그의 물 침례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다른 주석가들의 견해는 십자가의 고난 그자체를 가리키며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것을 신학자들끼리 다투도록 내버려둡니다. 두 견해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어느것을 택하든지 크게 틀릴것은 없습니다. 요한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더 오래된 사본에는 7절이 없습니다. 그 구절이 10세기까지는 사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요한의 원본에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0세기 이전에있었던 더 오래된 사본에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은 아마도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구절로 초기사본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초대교부들중에 고대사본에서 이 특별한 구절을 인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본을 사용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참고한 교부는 단 하사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원전에 없었던것아라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제 6절에서 8절로 갑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무슨 증거를 합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5:8).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하여 얻은 구원을 증거합니다. 물 침례와 십자가 고난의 침례 혹은 그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 - 이 두가지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기록을 증거하노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너희가 믿게 하려고 기록한것을 증거하노라” 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창으로 찌른것을 증거할때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인 면에서 그것을 보면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군병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을 때 그는 이미 죽어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군병들이 예수에게 왔을 때 그는 이미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나의 생명을 취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그의 영혼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네 불일은 다 끝났다. 이제 떠나라” 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버려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또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그의 영혼을 버렸다” 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젠 떠나도 된다. 다 이루었다. 좋다.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군병들이 왔을 때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으며 그것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군병이 그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군병이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창이 그의 심장이 있는 곳 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이 심장이 터져서 파열된 심장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실제로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파열되면 심장을 둘러싼 주머니에 물과 같은 물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심장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생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 파열된 심장으로 인한 죽음을 시사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가 그의 영혼을 버리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 합니다. 증거하는 자가 셋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과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증거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5:9b). 우리의 법률체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까? 증인입니다. SPB 은행을 털다가 범인이 체포되어 범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제 무죄를 탄원하여 변호할 훌륭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첫 증인과 범인의 이름 및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범인은

SPB 은행의 출납부 직원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증인에게 묻습니다 “3월 15일 오후 2:00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증인이 대답합니다 “한 남자가 내 창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종이 봉지와 쪽지를 내게 주었는데 거기에 ‘내게 총이 있다. 돈을 봉지에 가득 채워서 내게 넘겨 주지 않으면 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보입니까?” “예, 바로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저 남자가 확실합니까?” “아, 예, 확실합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의 얼굴 아래쪽에 있는 흉터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다음 증인을 부릅니다. “오후 2:00 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예, 우연히도 저는 은행안에 서 있었는데 이 남자가 창구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입니까?” “오, 예, 그가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가 확실합니까?” “오, 예,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3-4명에게 묻고 그들이 다 “오, 예, 그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달려 나갔어요. 내가 문앞에 서 있었는데 그가 도망할 때 하마트면 넘어질 뻔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려고 돌아설 때 그 사람은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마주쳤을 때 그의 손에 권총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끝난 후 판사는 선고합니다 “유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 드립니다. 우리의 법률체제는 사람의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두 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면 “야, 그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유죄입니다. 그들은 사건을 만듭니다. 모든 증거를 다 모아 사람들의 증거때문에 그에게 유죄라고 재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과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5:9a).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않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입니다. 빈번히 믿을수없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이야기를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다 죽어가는게 확실해, 그 친구가 울었어.”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클진대 하나님을 믿어야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5:9b-10a).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내안에 계시고 내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 마음에 증거 하는 내적 증거가 됩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는것은 내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기때문입니다. 헬라어의 Oetis (오티스 - 직관적 지식) 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안에 있는 성령의 증거로 인해 갖게된 직관적이고 내적인 지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5:10b).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만드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5:11-12).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의 아들안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떠나서는 영생을 가질수 없습니다. 영생은 양적인 시간의 길이 이상의것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면에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노쇠해 가는 내 육체를 볼때 이 노쇠한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보다 더 지긋지긋한 일은 없을것입니다. 걸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많이 낙심했을것입니다. 속사람은 새로와집니다. 걸사람은 닳고 쇠퇴해가며 고장이 생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 집니다. 육신이 계속해서 약화되어 가는데 만일 내가 150년을 살아야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긋지긋한일일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도저히 그때까지는 살 가능성이 없기때문입니다. 침대에서 기어나오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릴것입니다. 이육신으로는 영원히 살수있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것입니다.

참된 나는 나의몸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정한 나는 나의 영입니다. 육신은 내영이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년수가 더함에 따라 하나님이 설계하신대로 그목적을 달성할수 없게될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를 표현할수 없게 될때 하나님이 나의 영을 내몸에서 해방시키실것입니다. 나는 어떤 노인들이 사는집에서 썩어지기 싫습니다. 늙어서 겨우 걸어다니면서 사는것은 상상할수없어요. 그이전에 주님이 나를 데려 가지기 원합니다. 쓸모없이 되어 버려지고 싶지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느날 갑자기 어떤방법으로, 교통사고 나 심장마비나 어떤것으로든지 나를 데려 가시면 즐거워 하십시오. 내가 이 연약한몸에서 해방된것을 기뻐할것이 분명하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완전히 쇠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닳아가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나는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이 육체를 나쁘게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내게 건강과 모든것 주신 주님께 감사할뿐입니다. 내게 정력을 주신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과 소유 를 감사하며 즐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옛날 만큼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육체적인 능력도 이전 만큼은 없습니다. 이젠 아픈곳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눈도 이전같지 않습니다. 청력도 그러합니다. 많은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영생은 단순히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6).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소유한 질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과 기쁨의 삶과 의의 삶과 평강의 삶에대한 증거입니다. 이 생명은 아들안에 있습니다.

이영생에 대조되는 것을 살펴 봅시다. 솔로몬이 모든것을 다 시도해보았고 쓰라림을 겪은후에 늙어서 쓴 전도서를 기억하실것입니다. 그는 모든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가 시도해보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전 2:10). “여보게, 나는 모든것을 다 해봤네. 내마음에 원하는건 금하지 않았어.” 그는 재산 이나 교육과 과학 및 모든것의 첨단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해볼건 다 해보았습니다. 해아래서 할수있는건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후에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보게, 허무하고 허무한것 뿐일세. 해아래 있는 모든것이 허무하고 만족한게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이 참고 견딜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모든것을 시도해보니 해 아래있는 모든것이 전부 헛된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안에 있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히 거하는것이고 영생이며 부요할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불행히도 솔로몬은 아들안에 있는 삶을 몰랐습니다. 아마 해아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줄 압니다. 그것은 비참하고 좌절되며 허무한 삶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들안에 있는 삶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 하신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5:13a).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하고 그 교제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위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1:3-4).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5:13b).

이서신의 목적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하려 하는것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5:14-15).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는것을 유의 하십시오.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약 4:2-3).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때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때 범하는 공통적인 과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병속에 들어 있는 어떤종류의 요괴 (genie) 가 나와서 우리의 소원 세가지를 들어주는것 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내가 그의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의 뜻에 따라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것입니다.

나는 응답 받지못한 기도에도 응답 받은 기도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나는 엉망 진창이 되었을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는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기도에 확신을 갖게됩니다. 기도의 추진력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 지게 하는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5:16a).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도 있습니다. 죄 (sins) 란 단어의 의미는 “표적에서 빗나갔다” 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며 실제로 우리 모두가 표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1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표적을 맞추지못했으며 만일 우리가 표적을 맞추지못한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속에 있지아니합니다. 우리는 모두 표적에서 빗나갔습니다. 만일 형제가 표적에서 빗나가는것 즉 범죄하는것을 보게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죄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것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그의 등을 돌려델때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5:16b).

그 선을 하나님이 넘지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우리의 의사에 반대되는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강요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같이있도록 강요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면 그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있지 않아도 돼.” 그러나 당신자신의 고통을 선택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신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택한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할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합니다. 빈번히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못합니다. 사단은 속이는데 능숙하여 속이려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대신 거짓을 믿게하려고 강한 미혹을 가져옵니다. 나는 그가하는말을 기억에서 쓸수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 아내는 날 전혀 이해하지못해. 난 실제로 그 여자를 사랑한적이 없어. 내가 그 여자와 결혼 한건 알아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날 이해해. 대화가 되거든. 우리의 경우는 특별해.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영적이고 우리가 같이 있을때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있다고 느껴지거든.” 나는 이 바보같은 말을 쓸수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단의 거짓이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게되거나 잘못하는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그의 눈을 감겨 그가 하는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때문입니다. 그는 속고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께서 그의 눈을 열어 사단이 그의 눈에 가리었던 속임수를 볼수있게 기도 하십시오. 그의 진정한 가치관을 왜곡하도록 눈을 감기는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떠서 보게 하시며 그를 구원하실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사람이 고의로 그의 등을 돌려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를 구원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거스려 구원 하시지는 아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과 그의 일을 묶고 그의 마음을 진리에 열게 하시도록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사람의 의지에 반대되는일은 하시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5:16b-17).*

우리가 잘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정죄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된다고 하는 설교에는 동의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옥에서 타는불가운데 있을때 설교에 귀를 기울일걸” 등등의 것들에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죄 즉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것만이 당신의 영혼을 정죄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므로 죽음에 이르는 죄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5:18a).

그것은 내가 새성품을 가졌기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하나님에게로 난자, 곧 중생한자는 죄를 지을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재미있는것을 발견 하실겁니다. 한번 중생했다면 죄를 짓고서 도망가지 못할것입니다. 그전엔 속이고 피했지만 한번 중생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려 두시지 않을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마음에 걸리게 하실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냥 지나치는것이 당신에게 좋지않기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드러나는것을 보실겁니다. 만일 그냥 넘어 갈수있다면 혹시 당신이 중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히 12:6).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넘겨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 (5:18b).

누가 하나님께서로서 나신자 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5:18b-c).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를 지켜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로서 나셨으며 나를 지키시고 악한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5:19-20).

요한은 “ 우리가 안다, 안다, 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로서 난자는 죄를 짓지않음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으며 온 세상이 악한자안에 처해 있음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것을 안다.” ‘안다’ 는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 (ginosko) 이며 경험으로 아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된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참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임도 경험으로 압니다.

마지막 권고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5:21).

얼마나 중요한 권고 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상에 메달릴수 있기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우상을 방에 두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저녁마다 주문을 외우리라고는 믿지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여러분의 우상이 아마 거실이나 가족실에 있을겁니다. 그것을 여러 시간동안 쳐다보겠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하고 때로는 소리 질러대기도 할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상에게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당신의 아내나 다른 어떤것보다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상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갈때마다 쳐다보는 자동차 일수도 있습니다. 차에 올라가 앉아보고 언젠가 당신의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건 내꺼야.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는 알수없으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대신에 내가 집중하는것이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는것이나 또는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밀어내는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멀리해야할 우상입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것도 중간에 들어오게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사람일수도 있고 사물일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풍요함에 들어가도록 기회주신것을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과 말씀에 기름부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드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님을 믿고 더 의지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